

## 건강검진센터에서 자의로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 증상에 따른 이상 소견

배홍경, 이지현, 김대현, 서영성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**연구배경:** 건강검진센터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두통,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**연구방법:** 2001년 8월 1일부터 9개월간 동산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의 뇌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한 487명의 환자들 중 전화설문조사방법으로 연락이 가능한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, 연령, 과거병력, 특이증상의 유무,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, 흡연력, 음주력, 가족력, 규칙적인 운동유무를 조사하였다.

**연구결과:** 1. 전화 설문에 의한 333예 중 남144명, 여189명(남녀 비율 4:6)이며 연령은 18~80세(평균 연령 51.44세)이었다. 2. 과거병력이 없는 환자는 162명(48.6%)였고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는 171명(51.4%)으로 고혈압이 87명(26.1%)로 가장 많았고 빈혈 19명(5.7%), 우울증 16명(4.8%), 당뇨 13명(3.9%) 갑상선 기능 저하증 6명(1.8%), 갑상선 기능 항진증 5명(1.5%), 수면 무호흡증 1명(0.3%), 기타 66명(19.8%)이었다. 3. 증상이 없는 경우는 125명(37.52%)이며 두통,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는 208명(62.5%)으로 두통 161명(48.3%), 어지럼증 55명(16.5%), 기타 22명(6.6%)이었다. 4. 뇌 자기공명영상의 소견으로 정상은 262명(78.7%),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71명(21.3%)이며 lacunar infarction 17명(5.1%), sinusitis 15명(4.5%), empty sella 12명(3.6%), cyst 9명(2.7%), infarction 7명(2.1%), hemorrhage 6명(1.8%), encephalomalacia 6명(1.8%), aneurysm 5명(1.5%), Thornwaldt cyst 5명(1.5%), 기타 20명(6.0%)이었다. 5.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 뇌 자기공명영상상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는 43명, 정상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165명이며 증상이 없는 경우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경우는 28명, 정상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가 97명으로 증상유무에 따른 이상소견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 < 0.05$ ). 6. 과거력이 있는 경우 뇌 자기공명영상상 이상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는 51명, 정상인 경우는 120명으로 과거력이 없는 경우의 이상 소견 20명, 정상 소견 142명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. 과거력으론 고혈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( $P < 0.05$ ).

**결론:**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두통, 어지럼증 등의 증상유무에 따른 뇌 자기공명영상상 이상 소견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상생활에 문제없이 지내던 사람에서 검진 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서 이상 소견의 빈도는 21.3%로 나타난 것은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. 앞으로 좀더 광범위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겠다.

**중심단어:** 뇌자기공명, 두통, 어지럼증